

학령전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

Interpersonnal Problem-Solving Strategies of Preschoolers

김 은 희**

Kim, Eun Hee

이 영***

Lee, 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trategies. Specifically, the number and categories of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trategies were examined by age, sex, and source of problem (friends or mother).

The subjects were eighty 4-, and 6-year-old boys and girls. The instrument was based on Shure and Spivack's (1974) Preschool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IPS) test. The test was administered to the children individually in the preschool setting. The data were analyzed by two-way ANOVA, frequency, percentage, and Kendall's Tau.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lder children had higher PIPS scores; that is, the 6-year-olds suggested more alternative problem solving strategies than 4-year-olds. Children suggested more alternate strategies and different strategies for solving problems with friends compared to solving problems with mothers.

I. 서 론

A.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기능의 인지적영역과 사회적영역사이의 관계는 그동안 일부 사회 행동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론적 핵심주제로 간주되어 왔다. 이 영역은 연구연륜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

문제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아동의 문제해결 과정에 관한 연구는 퍼즐과제, 글자수수께끼 문제, 그리고 여러가지 지적, 창조적 과제들과 같은 비사회적인 범주의 문제들과 관련된 인지양식과 인지능력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Urbain 과 Kendall, 1980), 아동이 대인간 문제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 본 논문은 1990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연구조교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Spivack 과 Shure (1974)는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고찰 하면서 주로 개인적 욕구 또는 해결을 필요로 하는 대인간 상황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다루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난해한 퍼즐과 재가 아니라, 타인에게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거나 또는 대인간 갈등을 다루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즉 아동이 대인간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타인은 물론 자신을 위한 암시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그들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관련된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아동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래관계는 사회적능력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기여하는 것으로 점차 인식되어 왔으며, 또래 상호작용에 못지않게 성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Hartup, 1980; Youniss, 1980). 특히, 부모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중요한 매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인지 연구분야에서 아동-아동, 아동-성인 관계에 관한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Spivack (1974)등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학령전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두가지 측면, 즉, 대인간 문제해결 사고에 관련된 해결 방안의 점수와 해결 방안의 내용(반응 범주)에 있어서의 발달적 경향을 살펴 보고자 하며, 아울러 문제상황의 대상이 아동일때와 성인일때 등 대상에 따라 문제해결 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B. 연구 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연령 및 성에 따라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2. 문제상황의 대상에 따라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는 차이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A.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고하는 능력으로, 타인의 관점과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사회적 인지가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된다.

사회적 인지는 인간과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인지를 의미 하며, 여기에는 자기 자신, 타인, 사회적 관계, 사회적 조직 및 제도 등에 대한 지각, 사고, 지식을 포함한다. 다시말하면 물리적, 수리적, 논리적 세계는 다루지 않으며, 엄격히 사회적 세계만을 다룬다(Flavell, 1983).

사회인지에 관한 연구의 기원은 Piaget 연구에서 찾을 수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Piaget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주제로서 연구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새로워 지고 있다.

Shure (1982)는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사회적 능력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사회인지 능력과 사회적 행동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인 주제로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또는 아동의 사고 기술 즉,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의 사고 능력을 연구하였다.

Shure 와 Spivack (1974)은 연령, 성, 지능, 사회 경제적 수준을 달리하여 여러차례 사회적 행동과 대인간 문제해결 사고와의 관계에 대해서 양적인 관계로 측정을 하였다. 즉, 아동이 대인

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얼마나 많이 사고해 내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문제 상황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 사고의 하위 영역별 기여정도와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아동이 사용하는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이 어떠한 범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반응 범주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변화를 보이는지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다.

B. 연령 및 성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이론화한 Shure 와 Spivack (1974)은 아동은 4세부터 대인간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형성된다고 판단하고, 4세 이후의 각 연령층에서 사회적 적응 정도에 따라 대인간 문제해결 사고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McGillicuddy - DeLisi (1980)는 어린 아동의 연령층에서 발달적 향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령전 아동과 국민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학령전 아동보다 1학년 아동에서 사회적 상호교환을 제안하는 전략이 증가하였으며, 해결전략의 점수도 높았다.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조사한 Marsh (1982)도 연령에 따라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점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Shure 와 Spivack (1970)은 4세 아동 62명을 대상으로한 연구결과에서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 점수와 방안내용에 있어서 유의한 성차는 발견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1972)결과도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실생활문제에서 일어나는 대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해결 능력은 잘 적응된 아동이 보다 해결 방안점수가 많았으나, 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Kurdek (1982)는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한 종단적인 연구에서 사회적 능력과 사회 인지와와의 관계에 관한 예언도를 조사한 결과, 아동의 또래 기술, 원인 귀인 점수와 4년뒤 부모가 평정한 사회적 능력 점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인지 변인과 사회적 능력 변인간에는 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성차를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었는데, Selman 과 그의 동료들(1986)은 십대 청소년들의 대인간 협상전략을 평가한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인간 협상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 근거하여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제해결 방안점수는 증가하였으며, 문제해결 방안의 내용면에서는 자기중심적인 해결방안이 감소하고 상호적인 방안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에 따른 차이는 일관성이 없었으므로 보다 많은 연구가 요청된다.

C. 문제상황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아동은 부모-아동관계에서 일종의 사회적 위계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하고, 또래 관계를 통해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상황속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Oden, 1982).

Hartup (1978)은 친구관계는 서로가 긍정적인 강화를 하고 모델링하고 가르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또래의 기능을 사회화 담당자(socializing agent)로써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행동의 형성을 강화하고, 행동수정에 효율적 수단이 되며, 동기 및 인지적 변화와 그 확장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아동과 아동의 관계에서 같은 연령 또래와 다른 연령 또래 사이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활동의 양, 언어사용의 복잡성, 가르치는 행위등에서 차이를 보였다(Hartup, 1983; Holmberg, 1980). 예를 들면 위 연령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의지, 같은 연령의 상호작용에서는 공격, 아래연령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돌보기 등으로, 혼합된 연령에서의 우정과 같은연령에서의 우정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Hartup, 1986).

Eisenberg와 그의 동료들(1985)은 4세,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과 성인들간의 상호작용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아동들은 아동-아동과 아동-성인 상호작용에서 질적인 차이를 지각하고 있을뿐 만 아니라 성인이나 또래에 대한 행동은 다르다는 것을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인의 요청과 지시는 또래사이의 요청보다 덜 친사회적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과 성인간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이루어 지는 데 비해 아동과 아동의 관계는 수평적으로 형성됨으로써 그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질적인 차이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성인은 거절하기, 통제하기, 책망하기와 같은 높은 권력 기능(high-power function)을 가지고 아동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며 보호하는 존재로, 또래는 요구하기, 순응하기, 부탁하기와 같은 낮은 권력 기능(low-power function)을 가짐으로써 아동과 더불어 평등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존재로 인식된다(Youniss, 1980; Hartup, 1983, 재인용).

이상의 연구를 요약해 볼 때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양상은 또래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와 성인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있어서 즉, 문제상황의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 중류 지역의 유치원에 재학중인 만 4세, 6세 아동들로 남녀 각각 40명씩 총 80명이었다. 표집 방법은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에 소재한 유치원 2곳에서, 연구조사 시작일인 1989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4세 0개월에서 4세 11개월, 6세 0개월에서 6세 11개월에 해당하는 아동들 중에서 무선표집 하였다.

B. 연구 도구

학령전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는 (1)친구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 (2)어머니를 화나게 했을 때 (3)어머니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의 세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검사였다.

친구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와 어머니를 화나게 했을 때의 두 검사는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hure와 Spivack(1974)이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한 도구 PIPS (Preschool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검사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의 검사는 본 연구자가 PIPS 검사의 또래문제를 기초로 하여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친구 물건 갖고 싶을 때”의 도구는 한 아동이 다른 아동이 갖고 있는 장난감을 갖고 싶은 경우 대안적 해결 방법을 생각해 내는 상황으로써 인형 또는 미니트럭, 꽃삽, 연, 그네, 작은북, 배, 팽이 등의 7가지 그림카드를 제시하고 아동에게 가능한 많은 해결안을 이끌어 내도록 고안되어 있다. 일곱가지 상황에 대해 아동이 제시한 반응을 <표 1>과 같은 기준에 의해 반응범주를 정하

고 배점 하였다.

〈표 1〉 친구물건 갖고 싶을때 검사의 반응범주 및 점수

반응범주	점수	반응 내용
요 청	1	나도 가지고 놀고 싶어. 빌려 줄래? 같이 놀자 등.
설 득	1	나에게 줄수 있겠니(친절한 어조로)? 나도 놀게 해줘 응? 부탁할게 등.
교 환	1	오빠 연 갖다 주고 바꿔서 한다. 내 장난감과 바꾸어 가지고 놀자. 엄마 인형과 바꾸자 등.
공 평 (둘이 함께 참여)	2	함께 놀이의 형태. 너랑 나랑 북채 하나씩 갖고 놀자. 너는 앉고 나는 서서 함께 그네타자 등.
공 평 (교대로 참여)	1	너 한번 나 한번 사이좋게 놀자.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사람이 갖고놀자. 시계를 가져다 시간을 재면서 한다 등.
뇌 물	1-3 ¹⁾	초코렛, 사탕, 돈을 줄게 등. 그네를 밀어준다(서비스). 연을 높이 날리도록 도와준다 등. 내 장난감 가지고 놀게 해줄게(약속). 우리집에 초대할게 등.
권위의존 계 책	1 1-2 ²⁾	엄마에게 이른다. 큰형 데려 올꺼야 등. 거짓말로 그만하자고 얘기한다 등. 거짓말로 놀자고 얘기한다 등.
보 상	1-2 ²⁾	나랑같이 놀면 더 재미 있을꺼야 등. 색종이로 사람을 만들어서 배놀이하자 등.
심리적자극	1	너는 착한 아이야. 우리 사이좋은 친구되자고 얘기한다 등.
위 협	1	너랑 안 놀꺼야(화난 목소리로). 넌 욕심장이야 등.
기 다 림	1	그 친구가 다 놀고 갈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렸다가 탄다(갖고 논다) 등.
빼앗기 신체적공격	1 1-2 ³⁾	빼앗는다. 날째게 잡아챌다 등. 때린다. 발로 찬다 등. 얼굴에 모래를 끼엿는다 등.
일방적공평 흠 치 기	1 1	나 쥐, 내꺼야. 내가 가지고 놀던거야 등. 친구가 안볼때(물 먹으러 갈 때) 갖고 간다. 물래 가서 살짝 가져온다 등.

주 1) 물건제의, 서비스제의와 약속에 대해 각각 1점씩

주 2) 각 방안에 대해 1점씩 첨가

주 3) 신체 또는 공격물 이용시 각각 1점씩

이 검사의 채점자간 신뢰도는 (채점자간 일치 채점을 하였다. 채점자간 신뢰도는 .88, 채점자
 된 범주수×2)/(각 채점자의 점수합계)를 사용하 내 신뢰도는 .92였다.
 였으며, 채점자내 신뢰도는 일주일 간격으로 재 “어머니를 화나게 했을 때”의 도구는 아동이

〈표 2〉 어머니를 화나게 했을때 검사의 반응범주 및 점수

반응범주	점수	반응 내용
대 치	1-2	새로운것을 하나 산다. 다른것으로 빌려 온다 등. 돈을 주고 값을 치룬다 등.
수 리	1	테이프나 풀로 붙인다. 문지른다. 다림질 한다. 지운다 등.
권위의존	1	유리창 아저씨에게 부탁한다. 가게 아저씨에게 맞추어 달라고한다 등.
사 과	1-3 ¹⁾	미안 합니다. 잘못 했어요. 죄송 합니다 등. 다시는 안그럴께요 등. 내가 했어요. 내가 꽃병을 깬어요 등.
거짓말전가	1	내가 안 그랬어요. 다른 친구가 그랬어요 등.
요 청	1	화내지 마세요. 나 때리지 마세요 등.
심리적자극	1-2 ²⁾	엄마를 껴안는다 뽀뽀한다 등. 나 매맞을께요, 벌 서겠어요. 때리지 마세요 하면서 슬프게 운다 등.
보 상	1-2 ²⁾	꽃병에 예쁜꽃을 사다 꽂는다 등. 엄마 일을 돕는다(심부름, 청소) 등.
감 추 기	1	엄마 보시기 전에 깨끗이 치운다. 책상위에 책상보를 씌운다. 흠집이 난곳에 책을 올려 놓는다 등.
도 망	1	도망 간다. 숨는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다 등.
깨끗이치움	1	쓸어 버린다. 쓰레기 통에 집어 넣는다. 깨끗이 닦는다 등.

주 1) 사과, 잘못, 시인은 각 1점씩, 새로운 사과방안 첨가마다 1점씩 첨가
 주 2) 각 방안에 대해 1점씩 첨가

〈표 3〉 어머니 물건을 갖고 싶을때 검사의 반응범주 및 점수

반응범주	점수	반응 내용
요 청	1	엄마, 나 좀 빌려 주세요. 엄마, 이것 좀 쓰면 안 돼요? 가지고 놀아도 돼요? 나 좀 해 볼게요 등.
설 득	1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딱 한번만(두손을 빈다).
교 환	1	엄마, 내가 돈 줄게요 나 좀 주세요. 내 수첩과 바꾸어서 가지고 놀면 돼요. 돈을 모아서 엄마사진기와 바꾼다 등.
공평(함께 참여)	2	엄마한테 내사진 찍어 달라고 그러면서 같이 논다 등.
공평(교대)	1	엄마 한번 나 한번 찍자고 한다 등.
뇌 물	1-2 ¹⁾	집 잘 보고 있을게요, 빌려주세요. 안 잊어버리고 놀게요 등. 잠자리 잡아 드린다 등.
권위의존	1	아버지께 이른다(할머니, 할아버지) 등.
보 상	1-3 ²⁾	엄마말을 잘 듣는다(착한일, 심부름) 등 공부를 열심히 한다 등. 꽃을 꽃아 기쁘게 해드린다 등.
심리적 자극	1	숙제, 공부에 필요해요. 친구 생일인데 한번만 찍어 준다고 얘기. 친구도 갖고 있어요, 나도 갖고 싶어요 등.
기 다 림	1	엄마가 새것 살때까지 기다린다. 조금 남겨줄 때까지 기다린다. 엄마께서 화장품 발라 보라고 하실때까지 기다린다 등.
빼 앗 기	1	빼앗는다. 엄마께서 신고계신 구두를 벗겨서 자기 가 신는다 등.
일반적 공평	1	이 수첩 인제 내가 가질꺼야 등.
흠 치 기	1	엄마 시장 가셨을때 몰래 해 본다. 엄마 주무실때 몰래 갖고 논다. 엄마 안계실때 갖고 논다.

주 1) 물건 제외와 약속에 대해 각각 1점씩

주 2) 각 방안에 대해 1점씩 첨가

어머니께서 화가 날만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 어머니의 역정을 덜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섯가지의 상황이 제시되었다. 다섯 가지 문제상황은 어머니가 아끼는 꽃병을 아동이 깨뜨린 경우, 어머니가 아끼는 옷장에 흠집이 생긴 경우, 어머니의 예쁜옷에 구멍이 난 경우,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책 몇장이 찢어진 경우, 그리고 야구놀이를 하다가 유리창을 깬 경우 등 이었다.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제공할 만한 시각적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어머니 물건 그림카드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어머니와 아동의 인물 그림카드만 각각 한장씩 보여 주었다.

아동이 제시한 해결방안을 <표 2>와 같은 반응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점수를 주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친구물건을 갖고 싶을때의 검사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재점자간 신뢰도는 .92, 재점자내 신뢰도는 .93이었다.

“어머니의 물건 갖고 싶을때”의 도구는 문제상황의 대상에 따라 대인간 문제 해결 방안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써 친구물건 갖고 싶을 때에서 사용된 장난감 대신에 어머니물건(사진기, 계산기, 시계, 목걸이, 구두, 화장품, 수첩)을 선정하여 일곱가지 문제상황을 구성 하였고 각 상황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었던 반응범주와 배점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신뢰도는 앞의 검사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였으며 재점자간 신뢰도는 .89, 재점자내 신뢰도는 .92였다.

C.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첫번째 예비조사에서는 어머니의 물건을 갖고

있을 때의 검사도구를 제작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들의 자문을 구하여 아동이 갖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물건 열 다섯 품목을 선정하였다. 4세, 6세 아동 8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정된 일곱가지 품목은 사진기, 계산기, 시계, 목걸이, 구두, 화장품, 수첩 이었다.

두번째 예비조사에서는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세가지 검사도구의 적절성, 실시절차의 적절성, 소요시간등을 알아 보았으며, 그 결과 검사소요시간이 총 35~45분으로 대상아동에게는 무리이므로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1989년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에 걸쳐 8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세 검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서 무선순위로 실시하였으며, 각 아동의 반응은 미리 준비된 기록용지에 기록하였다.

D. 자료처리 및 분석

제시된 문제상황에 대하여 각 아동이 반응한 내용을 기록용지에 기록한 후, 각 반응을 기준에 따라 범주를 정하고 점수화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 반복 측정된 이원변량분석, 백분율, 빈도순위, Kendall의 Tau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A. 연령과 성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방안의 내용이 연령과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위해 대인간 문제해결 반응범주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

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 친구물건 갖고 싶을때 반응범주별 빈도(백분율)

연령 성 반응범주	4세(n=40)			6세(n=40)			전체 (N=80)
	남	여	계	남	여	계	
공평	11(26)	12(21)	23(23)	17(24)	17(27)	34(25)	57(24)
요청	10(23)	9(16)	19(19)	14(19)	13(21)	27(20)	46(20)
기다림	9(21)	7(12)	16(16)	14(19)	11(18)	25(17)	41(18)
교환	2(5)	4(7)	6(6)	5(7)	5(8)	10(7)	16(7)
권위의존	2(5)	7(12)	9(9)	1(1)	3(5)	4(3)	13(6)
일방적공평	2(5)	2(4)	4(4)	5(7)	3(5)	8(3)	12(5)
훔치기	0(0)	4(7)	4(4)	2(3)	5(8)	7(5)	11(5)
빼앗기	2(5)	4(7)	6(6)	2(3)	1(2)	3(2)	9(4)
뇌물	2(5)	1(2)	3(3)	5(7)	1(2)	6(4)	9(4)
심리적자극	0(0)	4(7)	4(4)	2(3)	0(0)	2(1)	6(3)
위협	2(5)	0(0)	2(2)	3(4)	0(0)	3(2)	5(2)
보상	0(0)	2(4)	2(2)	1(1)	0(0)	1(1)	3(1)
신체공격	1(2)	0(0)	1(1)	0(0)	0(0)	0(0)	1(0)
설득	0(0)	0(0)	0(0)	1(1)	2(3)	3(2)	3(1)
계책	0(0)	1(2)	1(1)	0(0)	0(0)	0(0)	0(0)
계	43(100)	57(100)	100(100)	72(100)	62(100)	134(100)	34(100)

<표 4>에서 친구물건을 갖고 싶을때 4세와 6세 아동의 주요 해결방안은 '공평' '요청' '기다림' 이었으며, 연령증가에 따라 '권위의존'과 '빼앗기'방안은 감소하였으나 '교환' '뇌물' '일방적공평' 등의 방안이 증가 하였다.

<표 5>에 의하면 어머니를 화나게 했을 때의 아동의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4세, 6세 아동모두 '사과' '대치' '수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춘다' 반응범주가 높게 나타났다.

두 연령 집단에서 나타난 범주별 반응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4세와 6세의 반응빈도의 순위를 Tau 검증한 결과 친구물건 갖고 싶을때는 .69 어머니 물건 갖고 싶을때는 .66으로 두 집단의 범주별 빈도순위간에는 유의한 상관관이 있었다. 즉, 두 연령집단의 반응내용이 상관관이 있었으므로 연령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의 점수가 연령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연령과 성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의 점수의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어머니를 화나게 했을때 반응범주별 빈도(백분율)

연령 성 반응범주	4세(n=40)			6세(n=40)			전체 (N=80)
	남	여	계	남	여	계	
사과	16(25)	15(25)	31(25)	13(18)	18(23)	31(21)	62(23)
대치	14(22)	11(19)	25(20)	14(19)	18(23)	32(21)	57(21)
수리	10(16)	14(24)	24(20)	18(25)	15(19)	33(22)	57(21)
권위의존	0(16)	8(14)	18(15)	14(19)	9(12)	23(15)	41(15)
보상	4(6)	4(7)	8(7)	3(4)	7(9)	10(7)	18(7)
감춘다	3(5)	2(3)	5(4)	6(8)	8(10)	14(9)	19(7)
치운다	3(5)	4(7)	7(6)	3(4)	0(0)	3(2)	10(4)
거짓말	0(0)	0(0)	0(0)	2(3)	1(1)	3(2)	3(1)
숨는다	1(2)	1(2)	2(2)	0(0)	0(0)	0(0)	2(1)
심리적자극	2(3)	0(0)	2(2)	2(2)	0(0)	1(1)	1(0)
화내지마세요	0(0)	0(0)	0(0)	0(0)	1(1)	1(1)	1(0)
계	63(100)	59(100)	122(100)	73(100)	78(100)	151(100)	73(100)

〈표 6〉 연령과 성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점수의 이원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주효과	117.63	2	58.81	11.31**
연령	117.62	1	117.61	22.62**
성별	.01	1	.01	.00
상호작용효과	.61	1	.61	.12
오차변량	395.25	76	5.20	
전체	513.49	79	6.50	

** p<.01

〈표 6〉에 의하면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의 점수는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주효과,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즉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의 점수는 4세 아동 집단 보다는 6세 아동집단이 유의있게 높았다.

B. 문제상황의 대상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의 방안내용이 문제상황의 대상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인간 문제해결(친구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 어머니의 물건을 갖고 싶을때)의 반응 범주 빈도와 백분율을 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연령과 문제상황 대상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 반응범주별 빈도(백분율)

반 응 범 주	친구물건			어머니물건		
	4세(n=40)	6세(n=40)	계(N=80)	4세(n=40)	6세(n=40)	계(N=80)
요청	19(19)	27(20)	46(20)	38(49)	38(37)	76(42)
설득	0(0)	3(2)	3(1)	8(10)	7(7)	15(8)
교환	6(6)	10(7)	16(7)	0(0)	4(4)	4(2)
공평	23(23)	34(25)	57(24)	2(3)	1(2)	3(2)
뇌물	3(3)	6(4)	9(4)	1(1)	6(6)	7(4)
권위의존	9(9)	4(3)	13(6)	5(6)	0(0)	5(3)
계책	1(1)	0(0)	1(0)	0(0)	0(0)	0(0)
보상	2(2)	1(1)	3(1)	1(1)	1(2)	2(1)
심리적자극	4(4)	2(1)	6(3)	2(3)	8(8)	10(6)
위협	2(2)	3(2)	5(2)	0(0)	0(0)	0(0)
기다림	16(16)	25(17)	41(18)	6(7)	13(13)	19(11)
흠치기	4(4)	7(5)	11(5)	13(17)	21(21)	34(19)
빼앗기	6(6)	3(2)	9(4)	1(1)	1(1)	2(1)
신체공격	1(1)	0(0)	1(0)	0(0)	0(0)	0(0)
일방적공평	4(4)	8(6)	12(5)	1(1)	1(1)	2(1)
계	100(100)	134(100)	234(100)	78(100)	102(100)	180(100)

친구물건 갖고 싶을 때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평’ ‘요청’ ‘기다림’ 범주가 많이 생각되는 해결방안이었으나, 어머니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는 ‘요청’ ‘흠치기’ 범주가 주요 반응범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흠치기’ ‘기다림’ ‘심리적자극’ ‘뇌물’ ‘교환’ 등의 범주는 증가하고 ‘권위의존’ 범주는 감소하였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상황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황에서 나타난 범주별 반응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반응 빈도의 순위를 Tau 검증한 결과 4세는 .27, 6세는 .26으로 4세, 6세 모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상황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황간의 반응순위에 상관이 없었다. 즉, 대상에 따른 반응내용이 상관이 없었으므로 문제 상황의 대상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다.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의 점수는 연령과 문제상황의 대상(친구물건, 어머니물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된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연령과 문제상황의 대상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점수의 반복측정된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연령과 문제상황의 대상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점수의 반복측정된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집단간				
연령	39.01	1	39.01	19.13***
오차	159.09	78	2.04	
집단내				
대상	107.26	1	107.26	88.78***
대상×연령	6.01	1	6.01	4.97*
오차	94.24	78	1.21	

*** $p < .001$, * $p < .05$

(표 8)에 의하면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의 점수는 연령과 문제상황의 대상에 따라 주효과가 1% 수준에서 유의 하였으며, 상호작용 효과가 5% 수준에서 의의있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보다 친구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에서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의 점수가 높았다. 문제상황 대상과 연령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의 점수는 연령과 문제상황의 대상에 따라 다르다. 문제상황의 대상에 따라 다르게 해결하는 방안점수는 4세보다 6세가 더 높았으며, 어머니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보다 친구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에서 문제해결의 방안점수가 많았으나 그 차이에 있어서는 6세의 경우가 약간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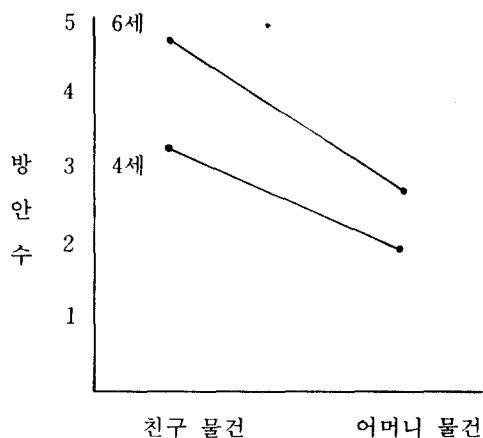


그림 1 문제상황의 대상과 연령간의 상호작용효과

V. 논의 및 결론

A. 논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이를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의 내용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4세, 6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 내용에 있어서 발달경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좀 더 확장된 연령집단의 추후검증이 요구된다.

한편,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의 방안점수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성에 따른 차

이는 없었으며 연령의 성의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다. 즉,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의 점수에서는 4세 아동 집단보다 6세 아동집단이 의의있게 높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연령에 따라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점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유치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McGillicuddy - DeLisi (1980)의 연구에서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점수는 1학년 아동이 유치원 아동보다 해결방안 점수가 높았다. Marsh (1982)의 연구 결과에서도 4학년 아동이 2학년 아동보다 문제해결 점수가 높았으며, 6학년 아동까지 포함시킨 연구에서도 6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보다 대안적 해결사고의 결과예측 사고의 해결방안 점수가 많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점수는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의 방안점수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Shure, Newman, 및 Silver (1973)의 연구와 Spivack 과 Shure (1974)의 연구결과, 그리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백인주(198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둘째, 대상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의 내용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각 범주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 4세, 6세 아동 모두 문제상황의 대상에 따라 반응범주의 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4세, 6세 아동 모두 또래 상호작용에서는 ‘공평’ ‘요청’ ‘기다림’이 가장 많이 언급된 방안이었으나, 어머니 상호작용에서는 ‘요청’ ‘흠치기’가 대인간 문제해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제안된 방안이었다. 아동-아동, 아동-성인 상호작용에 있어서, 연령증가에 따라 ‘권위의존’은 감소하였으나 ‘기다림’ ‘심리적 자극’ ‘뇌물’ ‘교환’ 등이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한 Youniss (198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4세, 5세 아동을 대상으로한 Eisenberg 와 그의 동료들 (1985)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해석 해 볼 수 있다. 아동들은 아동-아동과 아동-성인 상호작용에서 질적인 차이를 지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성인이나 또래에 대한 행동은 다르다는 것을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아동과 성인간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비해 아동과 아동의 관계는 수평적으로 형성됨으로써 그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질적인 차이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의 점수가 문제상황의 대상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점수는 연령과 문제상황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 즉,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의 점수는 두 상황에서 모두 6세 아동 집단이 4세 아동 집단보다 더 의의있게 높았으며, 두 연령 집단에서 모두 어머니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보다 친구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에서 문제해결 방안의 점수 차이에 있어서는 6세 아동의 경우가 약간 더 컸다. 이는 6세 아동이 4세 아동보다 또래와의 경험이 많을 것이므로 또래와의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 낼 수 있으며,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교육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해 보면,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은 문제상황 대상에 따라 다르며, 그 문제상황이 또래와 관련되었을 때는 성인과 관련되었을 때보다 더 많은 대안을 가지고 문제에 대처하며 해결방안의 내용도 서로 다른 내용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선정의 문제이다. 표집 절차에서 표집의 용이성 때문에 중류계층이라고 생각되는 유아 교육기관 두 곳에서 표집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는 가상적 이야기 상황에서 아동의 면접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같은 제한점이 있기는 하나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첫째, 인간의 문제해결에 관한 과거의 연구가 사람이 대인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지적 양식과 능력만을 주로 측정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욕구 또는 해결을 요하는 대인간 상황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초점을 두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둘째, PIPS 검사에서 다룬 문제상황 이외에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사고능력을 친구 물건 갖고 싶을 때와 어머니 물건 갖고 싶을 때로 비교해 봄으로써,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의 연구에서 문제상황의 대상에 따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다 확장된 연령 집단 특히 청소년기까지의 연구가 시도 되어야 겠으며, 단기간 종단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발달적 경향을 좀 더 명백하게 규명 해야겠다.

둘째, 본 연구절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린아동의 경우 상호작용하는 상대의 특성에 따라서 반응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면접이 아닌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대인간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실제로 관찰함으로써 면접에 의한

자료를 보완 시켜야겠다.

셋째,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 면에서 다양한 연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B. 결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전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의 내용 즉 반응범주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 그리고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수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 즉, 6세 아동이 4세 아동보다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 점수가 더 높다.

둘째, 학령전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방안의 내용과 방안점수는 문제 상황의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친구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라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해결방안은 '공평' '요청' '기다림'이지만, 어머니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에는 '요청'과 '흠치기'가 가장 흔히 제안된 해결방안이다. 그리고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의 방안점수는 어머니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보다 친구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에서 더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4세 아동보다 6세 아동에서 더 크다.

참 고 문 헌

- 박찬옥(1986).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사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인주(1987). 유아의 동료간 인기도와 사회적 문제해결전략 및 목표에 관한 연구. 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her, S. S., & Hymel, S. (1981).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 Sociometric and behavioral assessment. In J. D. Wine & M. D. Smye(Eds.), Social competence. New York: Guilford.
- Aher, S. R., Renshaw, P. D. & Hymel, S. (1982). Peer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In S. G. Moore & C. R. Cooper(Eds.), The young child: Reviews of research, 3, 137 - 158.
- Bearison, D. J. (1982). New directions in studies of social interaction and cognitive growth. In F. C. Serafica (Ed.) Social - cognitive development in context. Now York: Guilford.
- Campbell, S. B. & Cluss, P. (1982). Peer relationships of young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In K. H. Rubin & H. S. Ross(Eds.),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New York: Springer - Verlag.
- Eisenberg, N., Nundy, T., Shell, R. & Roth, K. (1985). Children's justification for their adult and peer directed compliant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325 - 331.
- Harter, S. (1982). A cognitive - developmental approach to children's understanding of affect and trait labels. In F. C. Serafica (Ed.), Social - cognitive development in context. NY: Guilford.
- Hartup, W. W. (1980). Peer relations and family relations: Two social worlds. In M. Rutter(Ed.) Scientific foundations of developmental psychiatry. London: Heinemann Medical.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P. H. Mussen(Series Ed.) & E. M. Hetherington (Volume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103 - 196). Now York: Wiley.
- Hartup, W. W. (1986). On relationship and development. In W. W. Hartup & Z. Rubiin(Eds.), Relationship and development. London: Lawrence Erlbaum.
- Krasnor, L. R. & Rubin, K. H. (1983). Preschool social problems: Attempts and outcomes in naturalistic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4, 1545 - 1558.
- Kurdek, L. A. (1982). Long - term predictive validity of children's social - cognitive assesments. Merrill - Palmer Quarterly, 28, 511 - 521.
- Marsh, D. T. (1982).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0, 107 - 118.
- McClure, L. F., Chinsky, J. M. & Larcen, S. W. (1978). Enhancing social problem solving performance in an elementary school sett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 504 - 513
- McGillicuddy - DeLisi, A. V. (1980). Predicted strategies and success in children's resolution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

- 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 175 - 187.
- Oden, S. L. (1982). Peer - relationship development in childhood. In L. G. Katz(Ed.), Current -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IV. Norwood: Ablex.
- Pellegrini, A. D. (1978). Applied child study: A developmental approach. London:Lawrence Erlbaum .
- Selman, R.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ow York: Academic.
- Selman, R. L. & Demorest, A. P. (1984). Observing troubled children's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Implications of and for a developmental model. Child Development, 55, 228 - 304.
- Selman, R. L., Beardslee, W., Schultz, L. H., Krupa, M. & Podorefsky, D. (1986). Assessing adolescent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Toward the integration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model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450 - 459.
- Serafica, F. C. (Ed.). (1982).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in context. Now York: Guilford.
- Shantz, C. U. (1983). Social cognition. In P. H. Mussen(Series Ed.), J. H. Flavell & E. M. Markman (Volume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Cognitive development (pp. 498 - 544). Now York: Wiley.
- Shure, M. B. (1981). Social competence as a problem - solving skill. In J. D. Wine & M. D. Smyne(Eds.), Social competence. New York: Guilford.
- Shure, M. B. (1982).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 cog in the wheel of social cognition. In F. C. Serafica(Ed.),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in context. New York: Guilford.
- Shure, M. B. & Spivack, G. (1980).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as a mediator of behavioral adjustment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 89 - 94.
- Shure, M. B. & Spivack, G. (1978). Problem solving techniques in childrearing. San Francisco: Jossey - Bass.
- Shure, M. B. & Spivack, G. (1974). Social adjustment of young childrearing. San Francisco: Jossey - Bass.
- Shure, M. B. & Spivack, G. (1974). The PIPS TEST manual. Washington, D. C.
- Spivack, G., Marcus, J. & Swift, M. (1986). Early classroom behaviors and later misconduct.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24 - 131.
- Spivack, G., Platt, J. & Shure, M. (1976). The problem solving approach to adjustment:A guide to research and intervention. San Francisco: Jossey - Bass.
- Urban, E. S. & Kendall, P. C. (1980). Review of social cognitive problem solving interventions with children. Psychological Bulletin, 88, 109 - 143.